

# 남악서 첫 '전남 경영자 포럼'...지역 경제 현안 논의

### 경총 주관 정례화...글로벌 전남 미래 지혜 모으기로 김지사 "아이디어·정보 공유로 전남 발전 방안 기대"

'전남 경영자 포럼'이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열려 지역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전남' 도약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18일 "전남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무안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함께하는 지역 경제, 함께 여는 글로벌 전남 미래'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전남 경영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 경영자 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전남경영자총협회 신명균 회장·김철희 명예회장, 이성룡 광주지방노동청장, 22개 시·군 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경영자총협회는 1981년 설립된 공익 경제단체로 현재 20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경영인의 노동 관계를

조정·지원하며 노사 간 이해 증진 및 협조 체제 확립을 통해 지역 산업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신명균 전남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남지역 노사 관계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남의 산업 발전과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전남 경영자 포럼'을 정례화해 지역 경영자 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제1회 전남 경영자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공적 기업 운영을 위한 경영 전략과 관점을 제시해 기업인들의 공감을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남 경제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경영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최근



18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전남경영자포럼'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신명균 전남경영자총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은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면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꽃 피우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포럼이 지역 경영인 간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과 정보 공유를 통해 글로벌 전남 미래를 함께

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2부 행사에선 '전남지역 산업발전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기

영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강연에 나서 기업인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 아파트 지하주차장 18%에만 차수판

### 강정일 도의원 "장마철 폭우 대비 설치율 높여야"

전남지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중 18%에만 차수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7일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전남 지역 공동주택 단지 수는 58개 단지가지만 차수판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한 10개 단지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도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마·태풍 등 폭우에 대비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해 차수판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민안전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차수판 설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정기자

##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젠걸음'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 간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1월 목포대와 도립대 간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 대학은 최근 목포대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어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양 대학은 이를 토대로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와 기초지자체 등과 협력, 통합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정혜선기자

## 광주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 979명 몰렸다

### 市, 전력거래소·신용보증재단 등 289개 드림터 연결 26일 드림청년 470명 선발...내달부터 5개월 간 체험

일경험을 희망하는 광주 청년 구직자 979명이 광주시의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8일 "15-17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 청년 구직자 979명과 289개 드림터(사업장)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드림 만남의 날'은 청년의 구직활동 의지를 북돋고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와 구직 청년의 일경험을 연결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공공서비스형 80개 기관과 한국알프스㈜, ㈜해양에너지, ㈜무등기압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형 사업장 209개 사 등 총 289개 드림터가 참여했다.

300개 부스에서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면접 등이 진행됐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시는 470명을 '제16기 드림청년'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드림터(사업장)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일경험을 체험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6일 광주청년정책

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광주시 누리집에 각각 게시한다.

광주시는 제16기 드림청년들이 일경험을 시작하기 전 드림터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8월1일부터 5일까지 공통교육을 진행한다. 공통교육은 ▲직무 기초적 이해 ▲노무·직장문화 기초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경험 기간에는 '드림메니저'(전담 매니저)들이 참여 청년과 사업장을 상시 방문하거나 상담을 진행, 드림청년들의 적응을 돕고 직무 상황과 근무 환경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일경험이 잔심부름이나 단순 보조 직무에 그치는 것을 막아 실질적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강기자

## 道, K-디즈니 등 내년 국고 확보 주력

### 박창환 부지사, 김문수·문금주 의원 면담 현안 건의

전남도는 18일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전남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설명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이날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게 '케이-디즈니 조성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어 박 부지사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만나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여지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며 정부의 SOC 계획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내년에도 긴축재정이

예상된다"며 "국회를 수시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국고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박 부지사 주재로 7월 초 시·군 및 실국장 국고예산 전략회의를 열어 기재부 정부예산 심의에 대한 대응 논리와 방안을 재정비했다. 7월 말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안 확정 시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